

전북특별법 사업화 대상 75건 확정

전북자치도, 강원자치도와 공동세미나·연대 입법활동 등 협력과제 발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 본격 실행을 앞두고 특례를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실행력을 갖추고자 기본과정을 탄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추진단(단장 박현규)에서는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의 333개 특례별로 사업화 검토를 마쳤으며, 75개 대상을 확정해 기본구상과 기본용역 등을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전반기에 이어 추가 특례를 반영하는 2차 개정 추진과 함께 강원과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 중이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총 14개의 지구·특구·단지 지정 대상 중 6개 지구를 연내 신청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첫 시도인만큼 선도 사례가 되도록 시군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섬세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14개 조문의 시행령 마련과 69건에 달하는 조례 대상들에 대해 연내 제·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특례를 꼼꼼히 살피며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의료용 헬프 산업화 등 핵심산업 육성,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과 같은 재정확보, 인구감소 대응 과제 등 전북에 꼭 필요한 특례 40건을 선정해 4월부터 부처설명을 돌입했다.

2단계 특례는 지난해 10월 산업현장 릴레이 간담을 시작으로 '특례사업발

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직능 단체를 비롯 시군, 도민 제안 등을 수렴하여 총 247건의 특례를 발굴한 바 있다. 이 중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40건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와 병행해 국회 단계에서 삭제됐거나 특례 보장 및 긴급 개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해서는 연내 판셋 입법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구성된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재정 특례 등의 공동 협력과제는 7월 정기총회를 통해 안전 대책 절차를 거쳐 4개 시도가 지방분권의 실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 6개월 앞선 강원도와도 각 지역

의 입법과정을 돕고자 공동연구팀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재정특례 등 연구를 통해 발굴되는 현안을 관심사로 부각시킬 전략이다.

이밖에도 도-국조실-행안부 실무협 의체를 강화하면서 시행령 제정, 2차 입법, 판셋입법 등 입법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MS社),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전북포럼'도 익산시, 전북연구원 등과 명품포럼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박현규 추진단장은 "연말이면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작되므로, 특별법에 담긴 조문들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면서, 고도의 특별자치 실행을 위해 2차 개정 입법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4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상황관리회의를 갖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 의료체계 일일상황 엄격관리

중증환자 이송 따른 병원별 수용능력 정보 사전 공유

비상진료체계 따른 도민 진료권 보장 현장관리 강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병관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상황관리 회의를 갖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4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상황관리회의에서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 종합분석 △비상진료 및 운영의료 기관 안내 △검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가동 등 비상대책본부 역할의 전반을 살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비상진료대책반 5개 팀 등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발생 및 이송관리, 진료 현황 등에 대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이송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119상황실 의료상담을 더욱 강화하는 등 빈틈없는 현상공유 및 협업 관리를 주문했다.

현재 전북지역은 수련병원(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전주에수병원) 전공의 430명 가운데 87.2%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해 집단행동이 7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의 경우 외래환자는 20%가량 감소했고, 수술환자는 50%가량 감소하는 등 종합병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공조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철저히 운영하고,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가는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재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장(사진 오른쪽)이 4일 호서5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를 점검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전투표 운영 만전

정재규 전북선거관리위원장, 총선 사전투표 준비상황 최종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 위원장 정재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 운영과 관련해 4일 시스템 모의시험 준비상황과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에 대한 최종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재규 위원장은 최종 모의시험 중인 전북특별자치도청의 호서5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 시스템의 보안 상태를 확인하고 통신망 단절 등 비상 사태에 대한 대처방법과 관

리매뉴얼 등에 대해 점검했다.

또한 투표소 내·외부를 둘러보며 선거인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국가 대사인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해주는 사무원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정위원장은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이 보관될 장소 중 하나인 전주시안산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장

소 상태를 살펴보고, 실시간 CCTV 녹화 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함 보관상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도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도내에서 보관중인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상황을 누구나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한 사전투표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유권자분들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전북 출신 민주연합 비례 후보들 "전북 전성시대 열 것"

백승아·위성락 후보 등 핵심

자산운용 공공기관 추가 이전

새만금사업 재추진 등 제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출신 후보자가 고향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백승아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전북이 고향인 위성락(비례2번, 익산), 오세희(비례7번, 부안), 정은호(비례14번, 고창), 박은미(비례21번, 전주), 강경운(비례20번, 군산) 후보가 자리를 함께 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백승아 상임선대위원장은 "여기 계신 전북출신 인제와 전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라며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중심지를 만들고 자산운용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바이오 첨단 소재, 이차전지 국가첨단 전지 유치 △새만금사업 조속 재추진 △전주~무주 고속도로, 김제~정읍 고속도로 확장 등 각종 SOC 사업 조속 마무리 등의 전북민을 위한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마다 이어진 소감에서 먼저 위성락 후보는 "국회에 나가게 되면 지역구는 아니라도 저를 키워 준 고향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발전, 전북 발전을 위해 전북 출신 후보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부안이 고향인 오세희 후보는 "윤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소비문화, 경기 침체, 민생 경제 현안이 많다. 전북도 발전하려면 민생이 살아야 지역경제 산다"면서 "전북에 맞는 산업이 뭔가를 지역구 의원과 적극 협의해 전북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박은미 후보는 "(비례)뎨 번호이긴 하지만 국회 진입하면 백 마디 말보다 전북 이슈 발전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강경운 후보는 "전북특지도 출범 77일째인 오늘, 후보들이 뽕뽕 뽕쳐 전북이 새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서를 진행한 정은호 후보는 "고향 고창에 1년에 서너 차례 내려오는 진

정한 전북의 아들이다. 전북을 보면서 항상 애환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회에 가면 전북출신 지역구 의원과 전북발전 위한 TF를 만들어 지역구, 비례와 함께하는 당사자 지지 모임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으로 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고 서운함과 실망감 많은 일 줄로 안다"면서 "저희 비례들도 유명세나 어떤 스타성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포진했다. 22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더욱더 처절하고 절실하게 국민의 곁에 더 다가 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뉴스스

전북참여자치, 여야 겨냥

"새 길 제시 공약 찾기 힘들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4·10 총선과 관련, "정책공약보다 심판이 우선"이라고 하며 "전북지역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4일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거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심판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민생의 심각한 어려움, 외교의 난맥상으로 국격의 추락, 언어가 터져나오는 부패 의혹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두고 정권 심판이나 전 정부 심판이냐 날 선 주장들이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랜 기간 정치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특정 정당은 손쉬운 선거 승리를 예상하면서 특별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TV 후보토론마저 거부한 배경에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오만함이 자리하고 있는 탓에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판이라는 것은 현재의 잘못된 정책과 방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심판선거는 이후 정책 변화를 강제한다"며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선거를 통한 유권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기에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투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뉴스스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읍·면 현황 청취를 비롯해 '부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0건(원안 18건, 수정 1건, 기타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3일간 진행된 읍·면 현황 청취에서의 의원들은 각 읍·면의 주요 업무 계획과 민원 사항 등을 청취하며 여러 사항을 공유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진 의원은 부안군에서 시행 중인 보조금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채꽃 경관보전사업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은 유채꽃 경관보전 사업 참여 농가에 피해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읍·면 현황 청취를 통해 각 읍·면의 지역 현안 등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군민이 만족하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조국혁신당 지지율 돌풍 계속

NBS 여론조사서 23%... 3차례 조사 연속 상승세

'당장 선거 치르면' 최소 11석 확보... 최대 14석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20%를 상회하는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4·10 총선까지 이 같은세가 이어지면 조국혁신당은 오는 4·10 총선에서 최소 11개에서 최대 12개 의석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의뢰로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1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표를 행사하겠다는 응답은 23%로 집계됐다. 앞서 3월 1주차 조사 14%, 3월 2주차 조사 19%에 이어 이번엔 20%선을 넘기며 지지율 상승세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이에 비해 조국혁신당과 지지 기반을 공유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세 차례 연속 지지율 내림세를 보였다. 민주당연합은 17%(3월 1주차)→16%(3월 3주차)→15%(4월 1주차) 내림세를 보였다. 민주당연합 지지층 일부가 조국혁신당으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조사에선 지지율 31%를 기록했다. 개혁당 3%,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 지지율을 보였다. '그의 다른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였고, '없음·모름·무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 비율이 전

국 정당 득표율보다 낮으면 모자란 의석의 50%를 채워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띄운 비례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신적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례대표 총 의석수 46개 중 각당이 확보한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을 고스란히 가져간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46개)을 배분하면, 최소 국민의미래 15석, 조국혁신당 11석, 더불어민주당연합 7석을 각각 챙긴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수정당의 경우 비례 의석 배분 요건인 '최소 3%' 득표율을 받으면 1석은 챙겨갈 수 있으나, 득표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국회 진입이 불발된다. 이날 기준으로 보면 개혁당만 1석을 챙겨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까지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한 유보층(23%) 표심에 따라 각당이 확보할 최종 의석수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들이 선거 당일 '거대 3당'으로 현재의 각각 지지율에 비례해 흩어진다 가정하면 최대 국민의미래 19석, 조국혁신당 14석, 민주당연합 9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기사 본문 속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스

'오직 전북'... 혈서 쓴 국힘 정운천 후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북 전주를 지역에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가 '오직 전북'이라는 혈서를 썼다.

정 후보는 4일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흰 종이에 '오직 전북'이라는 4글자를 써내려 갔다. 전북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앞서, 정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날 28일 "전북의 아픔과 분노를 제가 다 깨안겠다"며 사발문을 했다.



또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과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함께 올려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